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가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를 갖는 자본주의의 제도 때문에 인간에게 본질적인 소외가 생긴다는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선택한 인간관 때문에 생긴 결론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그의 인간관이란 원초적인 관심에 의한 인간이라는 것으로 그런 종류의 관심(Interesse)은 어떤 의미에서도 제도화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化하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제도화란 그 자체가 그가 말하는 소위 권력 분배를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인간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수 비제도화된 형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든다고 하겠다. 인간은 물론 그 자체 개인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인간은 외부적인 제도적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억압될 수' 있는 관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관심도 초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개인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하버마스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기독교적 인간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해도 세속 철학적인 영역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제도적인 '억압'을 받을 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역설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라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인데(물론,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제도를) 인간의 복지를 나름대로 구가하는 비교적 타당성 있는 서구적인 복지 자본주의를 아무런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입장이 못 된다고 하겠다. 전혀 제도적인 장치들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모르려니와...

A New Face for the Church

by Lawrence O. Richards

김 병 원

(고신대학 조교수·실천 신학)

Richards 박사가 저술한 「교회를 위한 새 양상」이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책이다. 저자는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을 전통적인 방법을 떠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쇠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일장은 저자의 교회관, 제이장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특성, 제삼장은 교인들의 肢교회 생활, 제사장은 저자가 본 교회의 미래상이다.

제일장에서 강조한 내용은 관계(relationship)이다.

1. 교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신약 성경에는 신자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다. 즉 개인이 성장해야 하며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활동 면을 많이 강조하였는데 그 제시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회는 개인 개인 교인들에게 교회에 속한 기관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회는 소규모로서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회는 연령별로 뿐만 아니라 흥미나 취미 및 필요성에 의한 모임의 기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회는 개개 신자가 참된 기독교 봉사자가 되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2. 교회와 가정 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기독교 가정이 한 단일적 유기체(Unit)로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책임 있는 교제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일적 유기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중요시하였다.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그들의 성격 발달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지어는 불신 저작자들까지도 이 아이디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주었다. 교회는 가정이 단일 생활(Unit life)로 발전되어지도록 기회를 주고 적극 도와야 한다. 교회는 가정 단일(family Unit)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교회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회는 가정을 전도의 초점으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임을 받은 이는 부모인데 부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함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자녀들은 정상적이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가정 교육을 학교 교육이나 주일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며, 부모들이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다.

3.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은 두 곳이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19, 20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대명령으로서 전도의 명령(Imperative of Evangelism)이며, 둘째는 아모스 5:15에 나타난 내용으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울지어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활동과 신자 개개인의 증거를 통하여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형태나 방법은 교육, 노동, 공업, 매스 커뮤니케이션, 정부, 예술 등등이다.

상술한 세 방면의 관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건전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같은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니 교회의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게 설정해야 될 것이다.

제이장에서는 성경에서 교회의 특성에 관하여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다루는 내용이다. 교회의 특성은 예언적 소명, 봉사 및 죄를 책망하는 기관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가 신자 개개인이 상호 관계되어진 것처럼 사회와도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제이장은 교회의 성경적 윤곽을 네 방면으로 나타내었다.

1.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구원 문제에 이를 때는 개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그 누구도 대동하든지 그 누구의 협력도 얻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혹은 거절하느냐 하는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수는 많으나 결정의 순간에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며 선택의 결과의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관계(salvation-relationship)에 있어서는 개인적이다. 갈라디아서 2:20에

는 그리스도와 나와 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교회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 요소는 에베소서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지체가 되었으나 각각의 의무는 다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성경은 비유하였다. (엡 1:21, 22)

2. 신자 상호간의 관계

바울은 에베소서 4:2, 3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신자 상호간의 관계는 겸손, 온유, 인내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격차가 있는 사회이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속박자 등등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간에 쌓였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간에 가졌던 적대감이 없어졌다. 이 하나로 만든 사실은 에베소서 2:19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이들과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나타났다(요일 2:9; 4:20, 21; 고전 3:4).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3.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와 세계가 대조적인 것같이 보인다(골 3장, 엡 5장). 그 이유는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

회는 행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의 내용은 크리스찬과 이방인은 목표와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 구절이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1, 2에서 잘 말씀해 주었다.

제이장에서 취급한 다른 내용은 믿음과 행위 문제이다. 믿음은 성격과 행위에 있어서 합당한 변화를 요구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14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야고보가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믿음과 행위의 일이다. 그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손을 내밀는 행위이다. 이는 야고보가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기독교적인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믿음은 새생명을 일으키고 새생명은 죽은 것이 아니고 역사하는 것이다. 로마서 12:9-13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내용이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생명은 자양되어져야 하고 발전되어져야 하며 생활되어져야 한다. 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히 13:1)

제이장에서는 교회 지도권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에 교회 지도권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권과 비교하여 말하였다(마 23:1-12). 또한 교회 지도권을 세상 지도권과 대

조적으로 말하였다(마 20:25-28). 교회에서 말하는 지도권은 권위(authority)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이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 지도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장이나 확대시키는 데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려 오신 것과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즉 종으로서의 지도자이다. 일반적으로 목사를 교인들 이상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인들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은 개방(openness)과 참여(involve-ment)로 특징지어졌다. 그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였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때는 자신이 완전하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타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지도는 있을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에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이런 인격적인 지도권 행사는 그룹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신약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권은 지도하는 권이지 강요하거나 독촉하는 권은 아니다. 지도권은 존중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권은 아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의 생활과 가르침의 신실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그 권위를 요구한다든지 책동한다든지 음모한다든지 정치적인 방법으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는 권위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하였다.(딤후 4:1-5)

제이장에는 또한 결정권(decision-making)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결정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 결정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모든 결정은 그를 위하여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며 초대 교회는 성령의 지시대로 하였다(행 13:2).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달(communication)이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결정을 교회에 전달하느냐? 그 전달 방법이 무엇이며 그 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가 하나란 말은 교회에서 각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와 책임이 있으므로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육식가는 채식가를 업신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다 영접하신다. 개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결정을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

제삼장은 저자가 주로 그룹 생활(group life)과 목표 설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목사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교 경험 이 많은 목사들도 그러하다. 좋은 반응은 메시지의 내용은 두말할 것 없고 전달 방법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방적인 방법보다 쌍방적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말하였다. 그 이유는 듣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룹 생활은 참교회의 특징이다. 그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호 사랑하는 표이다. 또한 group life는 각 신자가 group 생활에서 자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나를 가르쳐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신자들은 상호 봉사하는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런데 group life를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룹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small group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 이 small group 이 주체가 되어 알콜 중독, 마약, 신자의 사회 참여 등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는 계획이 치밀해야 하며 선전이 대대적이어야 한다. 이 group life의 목적은 신자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가깝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상호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 많다. 특히 대교회에서는 더 그렇다. 그러므로 상호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 5:13)라고 한 말은 교인들이 서로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상호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회수를 가능한 한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선 소교회가 유리하다. 소그룹이 가지는 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참석자 각각의 필요성을 알고 상호 봉사한다.
- 조화가 잘 되도록 힘쓴다.
- 그룹원 이외에도 접촉해서 봉사하도록 힘쓴다.

저자에 의하면 남을 위하여 봉사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성경 지식보다 오히려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삼장에서 취급한 다른 제목은 목적 설정(Goal-setting)이다.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저자는 어떤 목적을 변경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분명한 목적이어야 하고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여건들이 토의 되어져야 한다.
-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이 문제들에 대한 가능한 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져야 하며 논의되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 진행 과정을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제사장에서 저자가 주로 취급한 내용은 기독교 교육과 전도와 사회 관심사이다. 이 마지막 장의 내용에는 강화(intensifying)란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뜻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다 적용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또 그것으로 성장케 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 기독교 교육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도록 무장시키는 일이다.
- 기독교 교육은 젊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도우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도우는 것이다.
-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참 인간이 되도록 하며 자신이 개방적인 사람이 되며, 타인(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 기독교 교육은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신명기 6:1-6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다.

저자의 결론은 인간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미래가 현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또

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신조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보다 주어진 현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자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Het lezen van de bijbel

by J. Van Bruggen

박 종 칠

(고신대학 도서관장)

초대 교회사와 신약과의 관계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신약 연구 특히 신약 본문 비평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느낀다. 그래서 신약 학자가 초대 교회 사학자인 경우가 많은가 보다.

예컨대 유아 세례의 근원을 살피는 가운데 신약 학자 Joachim Jeremias가 1949년에 '초대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었는가?'를, 그리고 교회사가인 Kurt Aland는 1961년에 '신약과 초대 교회에 있어서 유아 세례'를 각각 썼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학자가 거의 같은 신약 자료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정반대였다. 전자는 초대 교회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J. Van Bruggen 교수의 「성경 해석 지침」 (Het lezen van de bijbel. Een inleiding, Kampen ; J. H. Kok, 1981, p. 187) 을 중심으로 -